

KIA 황동하 “잊지 못할 함성...5선발 경쟁 살아남을 것”

“부상 복귀 후 첫 등판. 그날 팬들의 함성을 잊지 못합니다.”

KIA 타이거즈 투수 황동하는 올 시즌 5선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담금질을 하고 있다.

2022 신인드래프트 2차 7라운드 KIA 입단한 황동하는 이듬해 1군 무대에 데뷔했다. 그 해에는 3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이후 데뷔 두 번째 시즌인 2024년에는 빛을 발했다.

이의리와 윤영철의 부상 공백으로 팀이 위기를 맞았을 때 선발로 등판해 맹활약했다. 2024시즌 성적은 25경기 103.1이닝 5승 7패 평균자책점 4.44. 25경기 중 21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며 주전급으로 성장했다.

비록 지난 시즌은 김도현과의 5선발 경쟁에서 밀려났으나, 그래도 롱런리프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불운이 찾아왔다. 그해 5월 8일 인천 원정 숙소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황동하를 덮쳤다.

그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요추 2·3번 횡돌기 골절 소견을 받았다. 전치 6주의 큰 부상. 심지어 뼈가 빠르게 붙지 않아 재활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황동하는 이후 9월 23일에서야 1군에 복귀했다. 후반기에 5경기를 추가로 뒀 뒤 시즌을 마무리했다. 최종 성적은 18경기 35.2이닝 1승 2패 평균자책점 5.30.

아쉬움을 삼킨 황동하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일본 스프링캠프에서 반등을 위한 훈련에 몰두하는 중이다.

실전도 여러 차례 치렀다. 지난달 24일

황동하 기자

KIA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가다



스프링캠프서 실전 소화...부상 재활 이후 컨디션 '이상무' 포크볼·커브 등 변화구 집중...“민고 쓰는 투수 증명할 터”



일본 아미모시마 스프링캠프에서 불펜피칭하는 황동하 선수.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WBC 한국 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는 2이닝 5피안타 1탈삼진 3실점(2자책)을 기록했다. 2일 삼성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는 3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대회 주자를 내보내긴 했지만, 결국 버티었다.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현장에서 만난 황동

하는 “작년 이맘때쯤보다는 힘을 못 쓰는 느낌이 있다. 그래도 걱정은 없다. 시즌이 가까워지면 다시 올라갈 것 같다”면서 “감독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더욱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투수에게 민감한 허리 부위를 다쳤다. 투수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낄 법도 하지만, 황동하는 더욱 과감한 투구를 한다.

그는 “학교에 다녔을 때 팔꿈치 수술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불안함을 많이 느끼면서 운동했는데, 그러던 더욱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운동하고 공을 던지려고 했다. 몸을 적극적으로 쓰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황동하가 부상 재활 이후 무너지지 않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팬들의 사랑이다.

황동하는 “팬들이 길에서 마주치면

관찮나고 많이 물어봐 주셨다. 특히 제가 인천에서 복귀 경기를 했을 때 그날의 함성은 잊지 못한다”면서 “다른 선배님들이 ‘팀의 레전드가 등판하는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KIA의 1~4선발은 제임스 네일-아담 올라-양현종-이의리로 사실상 정해졌다. 다만 5선발 자리가 문제다.

지난해 125.1이닝을 책임졌던 김도현은 팔꿈치 부상으로 빠른 합류가 어렵다. 여기에 윤영철은 지난 시즌 말 토미츠 수송로 인해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다양한 후보가 있지만, 황동하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황동하는 “최근 커브가 좋아졌다. 포크볼도 마찬가지다. 이번 캠프 기간에는 두 구종 위주로 많이 연습하고 있다”며 “감독님과 코치님에게 경쟁력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민고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목표는 당연히 5선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황동하는 “다른 목표는 없다. 일단 (5선발)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5선발 자리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며 “개막엔트리에 들고, 경쟁에서 살아남아 선발로서 저의 능력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올라 “개막까지 완벽 컨디션 집중”

kt와 연습경기서 2이닝 3피안타 2실점 “연습 구종 점검...몸 상태도 괜찮아”

KIA 타이거즈의 외인 올라가 올 시즌 첫 실전 투구 점검을 마쳤다.

올라는 5일 오키나와 긴 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해 2이닝을 던졌다. 총 41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1피홈런) 2실점으로 역투했다.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했고,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8km였다.

올라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 최원준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최원준은 곧바로 도루에 성공, 2루에 안착했다. 후속타자 뜰공 이후 1사 3루에서는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다. 이어 장성호에게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했다.

2회초에는 배정대를 뜰공으로 돌려세운 뒤 이강민을 땅볼로 잡았다. 후속타자에게는 2루타를 맞았지만, 김현수를 범타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막았다.

첫 실점을 마친 올라는 경기 후 “비시즌과 스프링캠프 동안 준비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연습한 구종들을 위주로 던졌다”며 “첫 등판이라 실전 감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던지면서 조



5일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KIA 타이거즈 선발 투수로 등판한 올라.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급씩 감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2회에는 제구도 괜찮았고 밸런스도 좋아져 비교적 만족스럽게 이닝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몸 상태도 괜찮다. 팀 스케줄대로 훈련을 소화하며 개막까지 완벽히 컨디션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IA는 이날 kt에게 2-5로 패배했다. 6회와 7회말 각각 정해원과 정영현의 적시타로 2점을 올렸으나,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송하중 기자

‘이정규호 첫 승 도전’ 광주FC, 홈 개막전서 축포 쏜다

내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인천과 맞대결 지역아동 1001명 초청·두촌구·쌍 페스티벌 등 이벤트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첫 승리를 노린다.

이정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앞서 지난 1일 광주는 시즌 첫 경기에서 제주 SKFC와 0-0으로 비겼다. 그러나 후반에서 전방까지 연계하는 축구와 공격적인 수비,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가능성을 남겼다. 광주는 제주전에서 드러난 가능성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려 다가오는 홈 개막전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수비에서는 광주 유스 출신 센터백 김용혁이 선발로 데뷔전을 치렀고, 45분 동안 민상기와 함께 무실점 수비로 팀에 큰 힘이 됐다. 측면에서는 신창무가 적극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 절명 역할을 수행했다. 전방에서는 문민서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동체 훈련 기간의 성과를 보여줬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시즌 첫 승을 거두며 초반 상승 흐름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특히 제주전 무실점의 안정감을 이어가면서 공격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광주는 상대 인천과의 최근 7차례 맞대결에서 3무 4패로 열세다. 2023년 3월 18일 5-0 대승을 거둔 이후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인천은 무고사와 제르소를 중심으로 이주용, 이명주 등 베테랑 자원과 박승호, 김건희 등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창용, 오후성, 정치인 등 알짜 선수들을 영입하며 K리그1에서의 경쟁력 또한 갖췄다. 다만 인천은 FC서울과 지난 1라운드에서 1-2로 패하며 수비 불안함을 노출했다. 광주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이를 공략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날은 홈 개막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먼저 광주센트럴병원의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소속 아동 및 관계자 1001명이 단체 관람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프로축구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즐거운 추억과 건강한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팬 참여형 이벤트 역시 마련했다. 장외 퓌렛 이벤트 참여 시 두촌구(두바이 쏘독쿠기) 1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경기 시작 전 동측 광장에서는 1대1 축구 매치업 ‘배틀필드’, 테이블 축구(서브사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광주시 스포츠 문화마실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전통 연희 공연과 윈드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져 개막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푸드부스’를 신설해 먹거리 컨텐츠를 강화했다. 기존 가관형 매점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CU 편의점과 공식 계약을 체결해 실내 매장 형태의 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 관람의 질 또한 높인다.

지역 제빵 업체 15곳이 참여한 ‘광주FC 빵 페스티벌’을 경기장 동측 3층 광장에서 열어 팬들의 만족도와 지역 상생까지 꾀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국내 최대 주짓수 국제대회 영암서 열린다

5월 23일 ‘인터내셔널 키즈 챔피언십’...8개국서 2000여명 참가

국내 주짓수 사설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인 ‘제2회 코리아 인터내셔널 키즈 챔피언십’(KIKC)이 영암에서 열린다.

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영암군체육회와 KIKC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3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5세 유소년부터 성인 마스터부까지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대항전과 골백매치 일반부 경기를 진행한다.

전남에서는 선한결(육암도 2년), 김민재(삼호중 3년), 임준혁(대불초 4년), 유지안(용당초 3년), 김주은(삼호중 2년) 등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다. ‘슈퍼매치’로 불리는 국제대항전에는

주짓수 본고장인 브라질과 일본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중국 등 8개국 정상급 유망주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특별무대에서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UFC에서 볼 수 있는 옥타곤 매트를 도입해 국제전과 골백매치를 진행한다.

옥타곤 무대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해설과 함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초보자를 위한 왕초보전과 일반 경기를 위해 총 8개의 매트를 별도로 설치해 참가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지난 1일 제주SK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